

아이에게 평생을 함께 할 친구를 선물합니다



'나의 의자' 프로젝트를 통해 평생 친구를 얻은 일본 어린이.

“태어나줘서 고마워. 너의 자리는 바로 여기야.” 일본 홋카이도 인근, 인구 7800명의 작은 마을 히가시카와 아이들은 태어날 때 세상에서 하나뿐인 선물을 받는다. 자신의 이름과 생년 월일 등이 새겨진 앙증맞은 원목 의자다. 'KIMI NO ISU'(나의 의자) 프로젝트를 통해서다.

'나의 의자'는 2006년 이소다 케이치 홋카이도 문화재단 이사장의 제안으로 탄생했다. 광주에서 열린 아시아문화포럼 참석차 광주를 찾은 케이치 이사장을 11일 광주문화재단에서 만나 '나의 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아동학대 등 아이의 인격을 침해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었다. 출산율도 1.15명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았다. ‘아이들이 공동체 전체의 아이’로 커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했다.”

그때 떠올린 게 '의자'였다. 아이들이 '자기의 자리'라고 느끼며 편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 평생 만지고 늘 가까이 둘 수 있는 것, 그게 의자였다. 언젠가 읽었던 책도 떠올랐다. 한 부부가 음식점에서 '3인분'을 시켰다. 아이가 세상을 떠난 날이라 함께 식사를 하겠다는 설명이었다. 그때 종업원이 말한다. “그럼 의자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은 케이치 이사장은 '의자'라는 게 인생 자체라는 것, 누군가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의자 디자인은 매년 바뀐다. 주최측에서 일본 전역의 디자이너들에게 작품을 의뢰하고, 디자이너들은 프로젝트 의미에 호응, 거의 무보수로 참여한다. 제작은 나무 가구의 산지인 아사히카와의 제작 기술을 습득한 전문 목공예가들이 각각의 아이를 그리며 손으로 만든다. 다양한 디자인의 의자는 아사히카와 미술관에서 상설전시 중이다.



이소다 케이치 씨

일본 홋카이도 '나의 의자' 프로젝트 지자체, 아이에게 1200개 의자 선물

“자신의 자리 제공·공동체 의식 키우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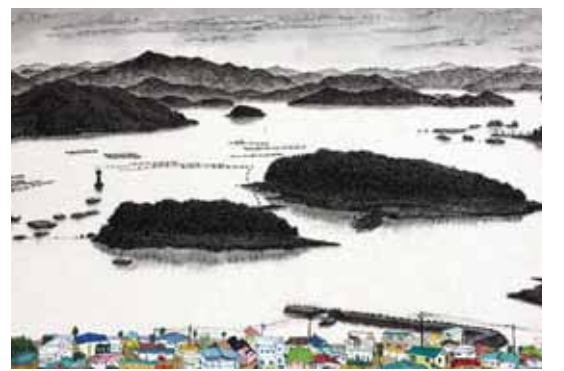
'나의 의자'의 출발은 일본 히가시카와였고 그해 태어난 51명이 의자를 선물 받았다. 현재 아이베쓰 등 4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개인들도 의자를 구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작된 의자는 모두 1200개다. 개인의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의 참여가 많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도 아이 곁에서 성장을 지켜보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한다. 의자는 아이들의 평생 친구이자 든든한 응원군이다.

쓰나미가 활취고 지나갔던 2011년 3월, '나의 의자'는 “1만8000명이 죽었지만 그날(3월11일)도 아이들이 태어났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후쿠시마 등 피해지역 128곳에 그 날 태어난 아이에 대해 문의했다. 전국에서 모금이 시작됐고, 98명에게 '희망의 나의 의자'를 전달했다.

의자 구입비는 지자체는 3만엔, 개인은 4만5000엔이다. 가격 대신 '참가비'라는 단어를 쓴다. '관계를 맺으며 평생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소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다양한 공익 활동 자금으로도 쓰인다.

히가시카와에는 지난해 '나의 의자 숲'이 조성됐고, 이곳에서는 매년 어린 나무를 심는다. 오는 10월6일에는 쓰나미 때 의자를 받은 아이의 가정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의자와 똑같은 종류 나무를 심고,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의자로 제작돼 다른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생명의 순환을 아이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케이치 이사장은 “의자를 통해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걸 느꼈으면 한다”며 “살다보면 평생 한 두번의 어려움은 다가오는데 의자와 늘 함께하며 가족의 사랑, 지역의 사랑을 느끼며 힘을 얻고, 사회 속 1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현열 작 '마량항 까막섬'

강진의 숨결

신세계갤러리 18주년 기념전 23일까지

“다산의 흔적과 청자의 빛깔을 따라서...” 광주신세계갤러리는 23일까지 개점 18주년 기념 '남도문화의 원류를 찾아서-강진, 숨:결'전을 연다.

'남도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전시는 광주신세계갤러리가 남도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시리즈 전시다. 그동안 남도지역 음식 문화, 섬, 영산강, 지리산 등을 테마로 작가들과 함께 남도 곳곳을 답사하고 만든 작품과 답사기를 전시해왔다.

열다섯번째 '남도문화' 테마는 '남도 답사 일번지' 강진이다. 이번 전시에는 회화, 사진,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18명이 8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작가들은 나희덕 시인과 함께 지난 7월 강진 백련사, 다산초당, 강진만 일대 도요지와 청자박물관, 마량항, 정수사, 하멜기념관 등 강진 구석구석을 살필고, 작품에 담았다.

“예술가들이 오감을 열어 강진을 들여다보고 느낀 후 재해석한 강진의 숨결이 전시된다”는 것이 큐레이터의 설명이다.

전시 기간 '탁본 체험'이 수시로 열리고, 14일 오전 11시에 '키즈 아트클래스'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26일~10월8일 강진아트홀에서도 진행된다. 문의 062-360-127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정애련 작곡가의 곡 만나봅니다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회' 내일 호신대 예음홀



한달에 한번씩 가곡을 부르는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회'(회장 황선옥) 9월 행사가 오는 13일 오후 7시30분 호신대 예음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 출신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애련(CMAK음악인협회 부회장·사진) 작곡가의 곡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전남대 출신으로 한국과 프라하, 드레스덴 등에서

작품을 발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씨는 '나의13월', '그리웠다 이것이' 등 창작 작곡음반을 냈다.

이날 공연에서는 소프라노 손숙경씨가 최근 시카고에서 연주돼 호평 받은 정애련의 '강변아리랑'과 '진달래'를, 남구여성합창단(지휘 박호진)이 한국적인 가락으로 호평을 받은 '동계동계동계동'을 선사한다. 또 '코스모스를 노래함', '아, 가을인가'는 친숙한 곡을 함께 부르는 시간도 마련했다.

한편 10월부터는 광주 동구청 옆 광주영상박물관 6층에서 행사가 열리며 날짜도 세번째 월요일로 변경됐다.

http://cafe.daum.net/gjkrsong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세계아리랑축전 개막행사

서시낭독·타고 참여 시민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다음달 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민주광화의 광장 분무대에서 열리는 '제2회 광주세계아리랑축전' 개막식에서 행사 시작을 알리는 서시낭독과 개막 타고(打鼓)에 참여할 시민을 공모한다.

서시낭독과 타고는 광주세계아리랑축전의 의미와 당위성을 선포하는 무대다. 서시낭독은 8명, 타고는 2명을 모집한다.

9월 현재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면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62-670-7974~8. /이보람 bora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5-18낙지

낙지의 명가 5.18낙지

체인점 사장님을 모십니다.

☎ 061-375-2383

HP. 010-6656-0002

상표등록 : 41-0241299호